

학생운동 탄압의 교두보

현 대학언론 사태의 현황과 본질

89년 공동운림학 쟁취 및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8·15회담' 성사투쟁은 전 국민의 통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한 것이었다.

그 후 89년 평양축전과 관련된 통일환복사 입수경쟁 반복은 학생운동의 진로를 조국통일로 집중시키면서 북한사상에 대한 학술적 탐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대학내의 진보적 학술이론 소개와, 변혁운동의 나팔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신문 및 교지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학술적 탐구를 본격적으로 실어내기 시작하였다.

주체사상이 대학 및 진보세력들의 변혁운동의 이론적 근거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할 무렵, 정권의 계획된 무자비한 탄압이 진행되면서, 대학언론에 대한 일대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그가 바로 88년 당시 서울대 8월 29일자 '대학신문'의 주체사상논문에 대한 관련자의 연행 수배, 부산여대학보의 '북한기행문' '독후감필자의 구속을 필두로 89년 성균관대의 '성대신문'에 게재 되었던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소고'로 편집장 구속등으로 나타났다.

그후 문교부의 5·6 대학신문이원화조치'가 발표되면서 대학언론은 다른 양상에 처하게 되었다.

그 양상은 5·6조치 이전, 정권과 학생기자와의 정면대응방식에 서, '학교측(=주간교수)과 학생

기자와의 대응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대학언론에서는 이처럼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 좌편향적 오류를 극복하고, 독자대중속에 뿌리내리고자, '매체혁신' 운동을 과감히 하면서도, 조심스레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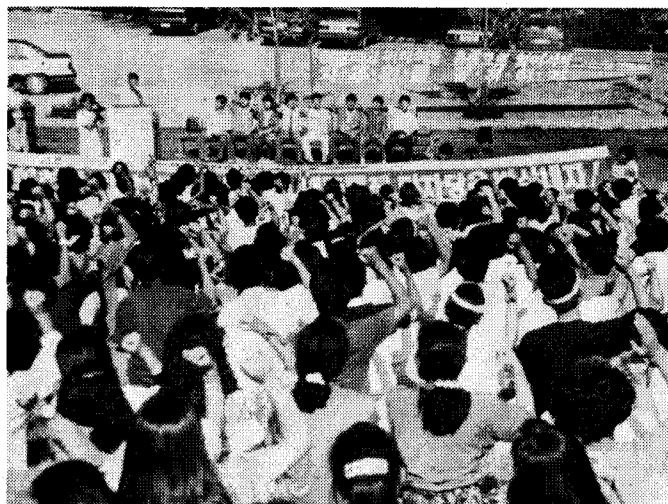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도 정권의 대학언

론에 대한 탄압은, 학교측의 일방적이고, 음습적인 탄압과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신문내용중 좌경·용공성향 및 체제전복성향에 대한 편집적 태도가 도입이 되면서, 대학언론에 대한 또 한번의 옥쇄를 죄어오기에 이르렀다.

그럼 여기서 학교측(=주간교수)과 학생기자간의 잦은 충돌의 실례를 살펴 보도록 하자.

교과대의 '교대신문'의 경우 89년 2학기 광고문제가 발단이 되어 1백여일이 넘게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학기말 이 문제가 타결되고 신문이 속간되었다. 동시에 당시 주간교수였던 김문조(사회학과)교수가 풀리나고 홍기산(신학과)교수가 부임하였다. 이후 교대신문에는 이전의 제



△사진은 지난 22일 서강대에서 열렸던 '대학언론 탄압분쇄'를 위한 서울지역 언론인 결의대회' 장면

기사 내용보다 학생회와의 관계 집중추궁

매체의 대중성 획득위한 자체 노력 필요

고대신문은 내부적으로 갈등과 진통을 겪어왔다.

이성과 같은 사태는 비단 고대신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소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사에 걸쳐 그러한 사태에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의 형태들도 상당부분 변화되었다.

학생운동의 추지기가 할 수 있는 방점을 이용, 학생회간부나 그 외의 학내 선진 활동가들의 경우 수배가 떨어질 경우 밀(잡적)으로 숨어버리곤 하지만 학생기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고 본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일부 학교에만 그 횡단 수배나 구속조치의 범위가 거는 들어선 상당부분 광역화(89년 10여개 대학에서 90년 40여개 대학 되었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행·조사방법이 평화적이고, 신사적으로 변하였고, 조 사중 질의 내용도 학생기자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문이나 교지에 실린 글의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회와 그 밖 에 조직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물 고 늘어진다 는 점으로 보아, 그 세력이 날로 대중화되고 있는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교두 보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을 상반기 및 방증을 이용한 대학언론에 대한 집요한 탄압의 본질은 '90년 하반기 정세속에서 학생운동의 부문을 중심으로 자리잡 아 가고 있는 대학언론의 역할과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 본다.

현 시기 대학언론에 종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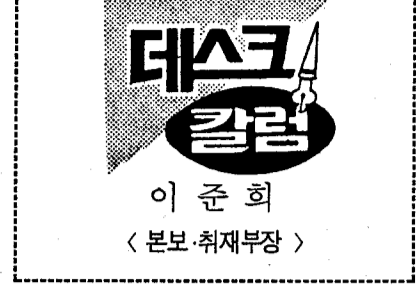
있는 선전일꾼들의 자세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문교당국의 혹 독한 탄압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주인 독자의 차가운 눈초리에 더더욱 긴장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매체혁신의 과학적 재정립을 통해 독자대중 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매체창 출에 선전일꾼의 모든 역량을 집 중시키는 것 또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으뜸이요, 피할 수 있는 싸움이라면 피하는 것이 차선일 것 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수임 을 각인하고, 다시금 선전일꾼의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특 집 부』

한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직 화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단체행 동을 할듯한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다 자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울바르게 지도되고 조직된다면 가장 혁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흡사시

스스로 부끄러워 지는 反日



『본보·취재부장』

지난 8월 15일은 일본제국주에 의해 우리 민족의 인권과 자유가 말살되던 일제치하의 암흑으로부터 해방을 맞은지도 꼭 45년이 되었다.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할때면 일제치하의 민족적 시련을 몸스 겪어왔던 세대 대는 물론이거니와 일제치하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 우리들도 일본에 대해 막연한 분노를 느낀다. 좀더 솔직히 말한다면 분노라기보다는 그것은 일본에 대한 현재의 열 등감을 과거로부터 보상받고자하는 자기방 어적 심리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국내의 유명일간지와 아시아 신문이 공동으로 '양국민의 혐오감정'이라는 주제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이 싫다'는 응답이 4천전 35퍼센트에서 66퍼센 트로 증가했다는 결과는 이러한 우리민족의 고조되고 있는 배일감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일본인의 응답자중 '한국인이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퍼센트로 한국 의 66퍼센트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대부분 의 사람들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 즉 '한국은 관심밖이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결과는 자존심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서인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곤 한다. 가까운 나라는 지리적인 근접성을 뜻하 는 표현인데도 먼나라는 한·일 양국민의 묘 한 감정대립을 표현한 말인듯하다.

이같은 반일감정은 금세기초 일제 강점 시기 아니면 그이전부터 출몰이 이어져 내려 온 역사적 사실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것이다. 일본의 대한침략사는 일찌기 조선 선조 때인 임진왜란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른바 정명가도(正明可道)라는 대의명분은

역사속의 반일감정과 문화적 친일주의

내세워 한반도를 침략했던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의 민족적수난의 차원을 넘 어 엄청난 차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 었다.

고대이래로 일본은 미개한 민족으로 한 상 우리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문물을 배워 가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민족 문화의 우월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우리민 족은 자존심상하는 고통을 일본으로부터 맛 보았어야 했으며 그것은 일본에 대해 우리 민족이 느끼었던 우월의식의 상실을 가져오 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일제 45년간의 식민지시대, 그야말 로 민족사의 최대수난기로 접어들면서 반일 감정은 극도에 달하게되며 감정적단계를 넘어 민족적 피해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해방이후 국교단절기를 지나 외세 에 강요된 굴욕적인 외교라는 평가를 받기 도 하는 한·일국교정상화를 거치면서 역사 적 맥락속에서 형성된 반일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 한·일관계는 새로운차원으로 발전 해왔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반일감정이니 피해의식이니 하는 말들로서 역사적 패배의 식을 상쇄시키는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끄 럽다. 일본-텔레비전 문화영화를 박치치며 보는 어린이들, 서점에 즐비한 일본 연예잡 지, 글자도 읽지 못하면서 각종 일본 연예 잡지를 탐독하는 청소년들, 일본 패션잡지 에 실린 옷차림을 흉내내고 일본노래가 흘러 나오는 카페를 즐겨찾는 젊은이들의 풍 속, 천지에 널린 가라오케, 일본방송수신을 위한 파라볼라 안테나가 즐비한 아파트등 식민주의시대의 문화적 잔재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일본문화가 한국의 곳곳에서 불결치고 있다. 광복45주년을 맞이한 오늘 역사적사 실과 현실속에서 뜸뭇거리며 반일감정과 왜 색문화침투로 인한 문화적 친일이 교차하는 우리사회를 바라보면 20세기초 조선침략을 위해 일본이 주장했던 '조선인 열등성'이 심정같은 때로웠다.

조선인은 사행심과 모방심이 강하고 무 기력하며, 회색적인 기질이 있어 동화되기 쉽다.

물론 항상 규칙적이며 시간각각 이 철저하다. 이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깎트며 철의 규율성을 가 질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슬 한 시련과 시대정령, 매관자배가

방학중 노동현장 체험기

아르바이트겸, 1년여 동안의 학생운동에서 나타났던 나의 관 념성을 극복하고 노동자 계급의 건강성과 혁명성 그리고 규율성을 체득하겠다는 목적으로 '공 단을 지난 방학동안 내 생활의 장소로 삼았었다. 비록 얼마되지 않은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 지만 이 기간동안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은 너무나 많았기에 나의 경험을 민중과 더불어 살고자 하 는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나는 농촌 출신이라 노동의 힘 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러나 이로 인해 나는 노동이 힘 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자 들을 이해하려 함으로써 노동자 들이 투쟁을 하는 것은 노동이 힘든 데 대한 댓가가 적기 때문 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학원에서 항상 노동자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한문 에 지고 있어 가장 혁명적이며 철의 규율을 가지고 계급주의와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여 가장 힘있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하는

많은 단언하 나의 것으로 체화하 지 못한 관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한달이라는 기간은 충분 하지는 않았지만 관념성이 극복 되는 과정이었으며 노동자를 알 게 되는 과정이었다.

내가 일했던 공장은 총인원 200여명의 1일 3교대제 염색공장 이었다. 전반적으로 일이 힘든 것은 아니었으나 나는 그중 가장 힘든 일을 맡았었다. 첫 출근을 하는 날 내 마음은 나도 생산현 장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의 밑거 들이 된다는 생각으로 들떠 있었 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니 몇시 간도 채 못되어 나는 혼란에 빠 졌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탈 수를 하였는데 탈수작업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넘기면 바닥이 지 저분해 지는데 청소를 하지않고 쉬었던 것이다. 공장 내부를 돌 러보며 앉아 있는데 저쪽에 있던 아저씨가 와서 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처음에는 별 트집을 다 잡는다고 생각했으나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은 노동자의 모습 이 될수 없으며 그런 게으름 모 습속에 내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 고 있었고 내에 대한 신뢰는 처 음부터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여 신뢰 를 얻어야만 한다. 신뢰를 얻지

서 나는 이게 아닌데' 하는 막연 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 한 생각은 내 경험의 일관함에 기인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평소에는 자기 일만 하던 노동 자들이 어떤 계기사항이 발생했 을 때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계휴가 이틀전이 었다. 휴가 참여율이 40%였는데

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직 화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단체행 동을 할듯한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다 자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울바르게 지도되고 조직된다면 가장 혁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흡사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철의 규율

사상이론 학습의 관념성 극복한 한 달 동안의 현장 체험

못한 사람은 노동자들을 위해 무 언가를 하려해도 아무도 그를 믿 고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은 자명 한 이치인 것이다.

다음은 노동자의 혁명성은 어 디에서 기인하는지 경험에 비추 어 적어보고자 한다. 내가 다닌 공장은 40대 후반의 노동자들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평소 의 분위기는 순종적이었다. 그래

이날 휴가비가 지급될 예정이었 다. 그런데 관리자측의 소홀로 오전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그날 휴가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별 반등없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제 기능을 하 지 못하는 노조였지만 모든 사람 들이 나서서 사무장을 관리실에 보내고 그대도 해결이 되지 않자 누구할것 없이 관리자에 대한 불

키고 있는 기업주에게 불신과 불 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노동자 라 할수도 없을 정도였다.

세번째로 노동자의 규율성에 대해서 적어보면, 노동자들은 자 신의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다. 모든 노동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 맡은 바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

의 역할과 착취속에서도 굽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 있었다. 그 들에게 굴종이란 곧 죽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에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 정열적으로 펼쳐 일어서 는 건강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결국 내가 느꼈던 것은 역할 과 착취라는 울타리 속에서 강철 로 단련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원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노동자를 이야기하 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생활에 있 어서는 모든 것이 불규칙적이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한번만 약 속도 너무 쉽게 어기고 있다. 그 리고 가장 힘있게 진행되어야 할 투쟁의 현장에서 정당한만을 가지고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향 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전날 아무리 술에 취해 끓어 떨어지더라도 다음날 결코 지각을 하지 않는 노동자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우리들은 물론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투쟁 과 KBS노조, 그리고 전국 모든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보 지 않았던가?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날 내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집단해 고를 당한 이웃공장의 담배라에 켜어진 글씨가 내 마음을 무겁게 눌러왔다.

"배배지게 일했는데 집단해고 켈말이나. 약력기업주 풀아내자" 내 걸음은 그안에 멈추고 있었 다. 담뱃위와 정문은 가시현상으로

들러쳐져 있었다. 한달 한평의 자본가를 살찌우기 위해 몇백명 이 피땀흘려 일한 결과가 집단해 고, 직장폐쇄였다. 그들은 어떤 계 생계를 이어가면 말인가?

지금도 그 담벼락의 붉은 글씨 가 눈에 선하다. 그리고 같이 일 하던 동료들이 머리를 숙여 지나 간다.

자신은 힘든 일만 맡아 하고 내게는 쉬운 일만 하게하던 두살 아래의 아이, 처음 들어갔을때 이것저것 자세히 가르쳐 주시던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투쟁 원장에 나가 노조를 바꾸어 놓겠 다던 두살위의 형, 그리고 입사 하고서부터 신고식을 하지 않았 다고 신고식타령을 하던 아저씨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 은 노동자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노동현장에 들어가 몸으로 부대 까라는 것이다.

김병찬
(정경대 경영'2)

“만약 인생을 한번 더
광고일을 해보고 싶다.”



살수 있다면,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트벨트—

삼회기획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일하는
광고전문집단입니다.

누구나 광고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광고전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광고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 끊임없는 도전과 탐구정신, 끈질긴 승부근성, 즉각적인 행동과 계속적인 실천을 개인에게 요구합니다. 동시에 완벽한 조직력, 상호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늘 필요로 합니다.

종합 광고회사 삼회기획— 삼회기획의 전문인들은 오로지 탐구와 실천 속에서 살며, 행동에서 앞서갑니다. 광고에 있어서의 과학화·전문화·국제화를 실현하며,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뢰와 공감의 광고를 만듭니다.

광고업계 성장률 1위를 계속 고수하며, 마케팅과 크리에이티브 파워에서도 항상 1위를 지향하는 삼회기획— 앞서가는 전문인들의 앞서는 광고철학을 눈여겨봐 주십시오.